

출장보고서

1. 출장개요

□ 목적: 2016년 10월 연방준비은행 주최 제3차 스트레스 테스트 학회 참석

□ 출장지: 미국 뉴욕주 뉴욕시 및 매사추세츠주 캠브리지(보스턴)

□ 기간: 2016년 10월 4일~9일(4박6일)

○ 세부일정

10.4(화) 인천 -> 뉴욕

10.5(수)-6(목) 뉴욕 연방준비은행 Fellow 및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와의
내년도 기본과제 관련 자문

10.7(금)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학회 참석

10.8(토)-10.9(일) 보스턴 -> 인천

○ 컨퍼런스 세부 프로그램은 첨부파일 참조

2. 활동내역 1: 논문발표

□ 발표 논문: “Optimal Stress Tests and Diversification” (written with Keshav Dogra)

○ 주요내용

-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금융회사의 부실 가능성 및 부실 발생 시 충격 흡수 및 회복 여력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정례화 되었음.
- 그러나 은행들이 금융감독 당국이 설정한 스트레스 시나리오에만 대응하여 자본 확충 및 손실 관리 계획을 세우려는 유인이 발생하여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 방향이 일원화되는 risk monoculture로 인해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을 오히려 증가시킬 문제점이 있다는 점이 학계에서 지적됨.
- 이러한 문제점을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논리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잠재적 역선택 문제가 있는 금융시장을 가정하고 은행들

의 균형 상태에서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금융감독 당국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 여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음.

- 분석 결과 스트레스 테스트에 의해 고위험(부실) 자산으로 판명될 가능성이 높은 자산일수록 포트폴리오에 편입될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포트폴리오 구성의 일원화는 자산 운용의 다각화를 통한 효율적 위험 분산의 저해로 이어짐을 논리적으로 보였음.
- 그러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는 금융시장의 역선택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하는데 기여하여 은행들의 전반적인 자금 조달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순효과도 발생함.
- 따라서 자산 다각화 측면에서의 사전적(ex ante) 비효율과 금융시장 내 정보 제공을 통한 사후적(ex post) 효율성 제고를 동시에 고려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공시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매커니즘 디자인 방식을 통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거나 낮을 때에만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최적이라는 것을 도출하였음.

3. 활동내역 2: 내년도 기본과제 및 금융감독정책 관련 전문가 자문

□ 간담회 1 - 스트레스 테스트의 건전성 감독에 미칠 실질적 효과

○ 간담회 참석자: 이동훈, 최동범 (뉴욕 연방준비은행)

○ 주요내용

-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 등 국내 금융감독당국은 현재 비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대형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정례화하는 것을 고려 중
- 정기적 스트레스 테스트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논의와 이를 고려한 국내 도입의 효과에 대해 뉴욕 연방준비은행 연구위원인 이동훈, 최동범 박사의 의견을 자문함.
- 최동범 박사의 의견: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가정하고 있는 거시경제적 충격의 시나리오를 금융감독 당국이 수립하다보니 금융시장에서

실제로 고려하고 있는 스트레스 시나리오가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로 금융시장에 스트레스 테스트 대상 은행의 건전성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가 제공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음.

- 이동훈 박사의 의견: 그러나 스트레스 테스트는 규제 대상 대형 은행의 손실 대비 및 자본 확충에 대한 계획 및 정리 방식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대형 은행의 부실에 대한 대비체계를 사실상 강제하는 효과가 있어 지난 금융위기 당시 많은 비판을 받았던 대형 은행의 대마불사(too big to fail)를 기대한 과도한 위험 추구 행위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두 박사 모두 국내 금융감독당국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도입할 때 금융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면밀히 고려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특히 관련 감독·정리 당국들의 긴밀한 협조와 정보 교류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강조하였음.

□ 간담회 2 - Wells Fargo 및 Deutsche Bank 사례를 중심으로 본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의 재설계

○ 간담회 참석자: 채종엽(Societe Generale), 최다스리(Credit Suisse) 외 다수

○ 주요내용

- 최근 Well Fargo의 고객 정보 유출 스캔들 및 Deutsche Bank의 불완전 판매로 인한 과징금 중징계와 관련해 금융시장 종사자들이 체감하는 규제의 강도 및 국내의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월스트리트에서 금융업에 종사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자문함.
-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Wells Fargo와 Deutsche Bank의 불법 행위 및 이로 인해 발생되었던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이견은 없었으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규제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 특히 Deutsche Bank의 경우 미국계 투자 은행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되어 심대한 운영위험(Operational Risks)가 발

생한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음.

-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은 본질적으로 이해상충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어느 하나의 정책목표에 의 과도한 집중이 다른 정책목표의 성과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두 체계 간의 균형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함.

□ 간담회 3 - 국내 금융감독체계 개선 방향에 대한 자문

○ 간담회 참석자: 최연구(Columbia University)

○ 주요내용

- 출장자의 내년도 기본과제 주제인 국내 금융감독체계의 개선 방향과 관련한 분야의 학계 전문가인 최연구 교수의 의견을 구함.
- 최연구 교수는 이전에 정부 요직에 종사한 관료의 퇴직 후 민간기업 고위직으로 임명되어 규제 당국에 네트워크를 통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전문 인사(revolving door)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문을 작성한 적이 있음.
- 앞으로 과제 진행 및 이와 같은 금융감독 당국의 인사와 관련한 지배구조 개선 정책 설계과 관련해 많은 협력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음.

4. 총평

□ 최근 금융감독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는 스트레스 테스트가 정례화된 미국의 사례들을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분석한 논문들을 접하여 국내 도입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음.

□ 또한 국내 금융감독체계 개선 방향과 관련하여 금융 선진국의 미국의 제도에 대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접하고, 과거 금융위기 극복 사례 및 건전성 감독 체계의 전면 개혁을 통해 이룩한 성과들을 목도할 수 있는 기회였음.

□ 마지막으로 내년도 기본과제의 연구에 있어 미국의 금융감독 체계의 전문가들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어 향후 연구 과제의 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